참여불교재가연대 리더스포럼 조수철 교수 '베토벤의 삶과 음악세계'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은 일생동안 480여 곡에 이르는 곡을 작곡 했다. 20대 후반에 청력장애를 앓기 시작한 그는 자살을 결심하고 1802년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를 작성하지만 자살을 포기하고 삶의 전환점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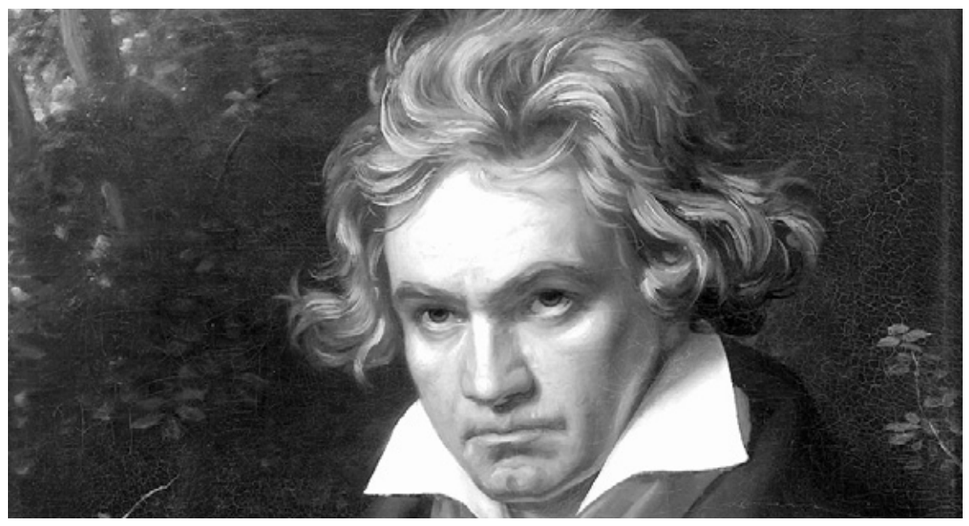
베토벤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혹한 운명에 대해 좌절하고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인격적인 성숙을 성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취할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렇게 해서 베토벤은 거의 전 작품을 청력의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작곡했다.

서울대병원 조수철 교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음악을 듣기 시작, 베토벤의 저서는 가리지 않고 구해봤고, 그가 살던 곳 그의 무덤, 기념관 등 베토벤의 발길이 닿았던 곳은 빠짐없이 찾아 다녔다. 이러한 베토벤에 대한 열정으로 일간지에 '베토벤 이야기'를 연재하는가 하면 베토벤협회 학술이사까지 맡고 있는 자타공인 최고의 베토벤전문가다.

한 예술가에게 마음을 빼앗겨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인물에 대해 탐구한 그는 베토벤의 음악의 핵심사상을 '대극(大極)의 합일(合一)'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다. 나와 너, 주체와 객체, 연주자와 청중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서 탈피해 음악으로 거대한 하나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대표 김동건)은 3월 8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조수철 교수를 강연자로 초청해 '베토벤의 삶과 음악세계'를 주제로 참여불교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다음은 강연의 요지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베토벤의 삶과 음악에는 不二사상 녹아있어

베토벤 전문가 조 수 철 교수(서울대학교병원), "베토벤은 나와 너, '연주자와 청중' 초월해 작곡"

베토벤의 음악에 담긴 불이사상

베토벤은 일생동안 480여 곡에 이르는 곡을 작곡했다. 대표적인 분야는 9편의 교향곡, 32곡의 피아노 소나타, 16곡의 현악 4중주곡, 3편의 종교음악, 10곡의 바이올린 소나타, 5곡의 첼로 소나타, 7곡의 피아노 3중주곡, 5곡의 피아노 협주곡 등이 대표적인 곡들이며, 이외에도 많은 성악곡들과 작품번호가 붙어 있지 않은 277곡이 있다. 이러한 곡을 작곡하는 과정에서 베토벤의 기본적인 개혁정신은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진·선·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깨뜨리지 못할 규칙이나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였다.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진선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베토벤이 취한 방법은 대극의 합일(Gegensatzvereinigen)이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불이(不二)사상과도 일맥상통 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베토벤은 '성악과 기악'이라는 대극적인 관계를 하나로 통합했다. 베토벤 이전의 모든 작곡가들은 성악과 기악이라는 대극적인 모델로 작곡에 임했다. 즉 성악을 위한 곡과 기악을 위한 곡은 서로 독립적인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베토벤은 합창환상곡과 '제9번 교향곡'에서 마지막 4악장에 합창을 포함시킴으로서 성악과 기악을 하나로 통괄하고 있다.

둘째, 베토벤은 '강함(強)과 부드러움(柔)'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러한 정신은 교향곡에서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베토벤은 모두 9곡의 교향곡을 작곡했다. 이 중 홀수번호(1,3,5,7,9번)는 강렬하고 남성적인 곡들이며, 짝수번호(2,4,6,8번)는 부드럽고 여성적인 곡들이다. 전체 9곡의 교향곡들에서 남성적인 요소와 여성적인 요소 즉 강(強)과 유(柔)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고 있다.

셋째, 베토벤은 '투쟁(鬪爭)과 평화(平和)'를 하나로 통합했다. 전형적인 예가 '제5번 운명교향곡'과 '제6번 전원교향곡'이다. 제5번 운명교향곡은 가혹한 운명과의 처절한 투쟁, 이 투쟁 끝에 이끌어내는 인간승리를 그리고 있는 곡이다. 그러나 제6번 전원교향곡은 자연에 순응하며 더불어 사는 인간의 평화로운 모습, 이에서 느끼는 환희, 자연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이 두 곡은 거의 동시에 작곡된 곡들이다. 투쟁과 평화라는 대극적인 가치가 베토벤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베토벤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통합했다. 제6번 교향곡에서 전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전원교향곡에서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인간의 평화로운 모습을 절묘하게 그리고 있다. 실제 베토벤은 자연예찬론자였다. 자연을 사랑하고 산책을 즐기고 산책하면서 자연으로부터 깊은 음악적 영감을 받았다. 베토벤의 삶과 음악에서 인간과 자연은 하나였다.

다섯째, 베토벤은 '조화로움과 부조화로움'을 하나로 통합했다.

베토벤은 초기시절부터 불협화음을 많이 사용해 작곡했다. 특히 현악4중주곡에서는 많은 부분이 불협화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화로움은 부조화로움이 존재해야 지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베토벤의 음악에서는 이러한 대극적인 가치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여섯째, 베토벤은 '성(聖)과 속(俗)'을 하나로 통합했다. 베토벤은 종교음악으로는 중기의 C장조 미사곡(Op. 86, 1807), 후기의 장엄미사곡 D장조(Op. 123, 124), 오라토리오 '감람산의 그리스도'(Op. 85, 1803)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종교음악에서 상당부분은 세속적인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다. 베토벤 이전의 음악가들은 '종교와 세속'을 대극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작곡했다. 그러나 베토벤에게 있어서는 종교와 세속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왜냐하면 세속이 없는 종교란 존재할 수 없고, 종교가 없는 세속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성과 속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본 것이다.

베토벤의 명작 480여 곡은 진선미의 극치
'강함과 부드러움' 등 대극의 합일 이뤄

일곱째, 베토벤은 '전통과 개혁'을 하나로 통합했다. 베토벤처럼 완벽하게 개혁을 성취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베토벤은 전통(보수)적 가치를 무조건 배척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개혁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후기 현악4중주곡'들이다. 이 곡들에서 한 악장은 반드시 모차르트나 하이든 풍의 악장으로 작곡했던 것이다. 개혁을 시도했지만 전통을 중요시한 베토벤의 '대극의 합일사상'을 느낄 수 있는 곡들이다. 교향곡의 작곡에 있어서도 3~7번까지 개혁적인 곡을 쓰다가 8번에 이르러서는 다시 전통적인 모델로 되돌아가고 다시 9번 교향곡에서는 음악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개혁을 하기 전에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베토벤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토벤은 삶과 죽음을 하나로 통합했다.

베토벤이 일생동안 가장 애착을 가진 주제는 '영웅주제(Hero theme)'였다. 영웅주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모든 사회 모든 종족에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주제로서 인간 심성의 원형(archetype)이라고 할 수 있다. 영웅주제는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탄생(Birth)-죽음(Death)-재생(Rebirth)의 3구조이다. 영웅이 태어나는 과정이 있고, 상징적 의미에서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부활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영원한 삶을 얻는 존재를 이른다, 즉 보편타당한 가치를 위해 스스로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삶을 얻는 존재가 영웅이다. 작곡 분야에 있어서는 제3번 영웅교향곡이 대표적이다. 이 교향곡은 제1악장이 '영웅의 탄생', 제2악장-영웅의 죽음(장송행진곡), 제3악장-영웅부활의 준비단계, 제4악장-영웅의 부활, 재생의 구조를 갖는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베토벤은 피아노 변주곡으로 만드는데 바로 '영웅주제에 의한 피아노 변주곡(Op. 35 1802)', 발레음악인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Op. 43, 1801)'이다. 이 외에도 코리올란 서곡(Op. 62, 1807), 에그몬트 서곡(Op. 84, 1810), 웰링톤의 승리(Op. 91, 1802) 등이 영웅을 주제로 한 곡들이다.

베토벤의 경우 실제 자신의 실질적인 체험(1802년의 하이리겐슈타트의 유서를 이름)을 통해 거듭나는 계기가 된 바 있다. 즉 베토벤 자신의 삶 자체가 영웅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베토벤은 자신의 삶이나 음악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궁극적인 과제를 합일시킴으로써 '영원한 삶'을 얻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베토벤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이며 또 미래의 인물이기도 하다.

#악성으로서의 베토벤, 그 교훈

베토벤은 '악성(樂聖)' 즉 '음악에 있어서의 성인'이라고 불리고 있다. 베토벤의 생애와 음악적인 발달과정을 통해 베토벤이 어떻게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유전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조기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선생님들로 부터 다양한 각도에서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덴, 파이퍼, 로바티니, 리스, 네페, 쉥크, 알브레헤츠버거, 살리에르, 드라고넷티, 하이든 등 베토벤의 소아기 또는 청소년기에 그 당시의 훌륭한 음악선생님들로부터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많은 후원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는 그 당시의 시대정신의 영향을 들 수가 있다. 여섯 번째는 베토벤 자신의 부단한 노력과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다. 마지막으로는 베토벤이 앓고 있었던 여러가지 질병들을 들 수가 있다.

조 수 철 교수는…

1949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을 수료하고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획득했다. 예일대학 소아연구 센터에서 연구 교수로 재직하며 유아 자폐증, 주의력 결핍증, 소아정신 약물학에 대해 연구했다.

조수철 교수는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1996년 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베토벤의 생애와 음악-발달학적 측면' '베토벤의 아홉교향곡들-발달학적 측면' 등의 글을 발표했으며 저서로는 〈베토벤의 삶과 음악세계〉 〈베토벤 그 거룩한 울림에 대하여〉 등이 있다. 책을 통해 그는 베토벤의 음악과 음악적 사상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베토벤의 음악이 인간의 삶, 불멸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탐색했다.

삶을 바꾸는 경이로운 최면의 세계 ! !

최면 심리요법 특별강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정한 최면요법!

최면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세계 유명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교수하고 있는 정신과학입니다.

대체의학, 종교지도자 또는
일반인, 주부, 직장인 등
최면학에 관심있는 모든 분!

무료 공개 강좌

3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당일 참석하시면 "최면 시연"을
직접 보실 수 있으며 사전 전화
접수 하신 30분께는
"마음치유 최면 CD"를 증정합니다.

▷ 강의내용 ◁
- 전생퇴행요법, 빙의치유법, 자기조절법, 타인조절법
- 불면해소, 불쾌감정소거, 금연, 금주, 습벽교정 등
-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집중력, 기억력증강법
- 성격개선, 대인관계개선, 발표불안, 자신감고취 등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미국 커버넌트대학 상담학박사
국제 임상 최면 전문가(I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 지도자 협회장
미국 국제 최면 치유학회이사
일본 최면의학 심리학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에서 최면학강의
공무원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등에서 최면특강

KBS, MBC, SBS, YTN, tVN 등 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총론, 최면요법 등

미국 스탠톤 대학교(Stanton University) 부설

한 국 최 면 과 학 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 2층) / www.hypnos114.com / ☎ 042)255-0734